“부처님의 마지막 당부 정진으로 실천”

부산 소림사, 열반재일 참회산림법회 개최

‘법에 의지하고 부지런히 정진하라’는 부처님의 마지막 유훈에 따라 부산 소림사가 70년동안 참회산림 법회를 이어가고 있어 귀감이 되고 있다.

부산 소림사(주지 종인)는 열반재일을 맞아 3월 23~27일 5일동안 ‘참회산림법회’를 봉행했다. 법회에 참석한 300여 사부대중은 ‘지심귀명례’에 맞춰 부처님의 명호를 하나하나 불렀으며, 증명법사로 등단한 前 포교원장 도영 스님은 법문을 경청했다. 이날 스님은 〈열반경〉의 내용을 설명하며 그 뜻에 따라 바르게 정진 할 것을 당부했다.

도영 스님은 “부처님의 열반재일을 맞아 기억해야 할 것은 ‘제행무상 시생멸법 생멸멸이 적멸위락’이라는 〈열반경〉 말씀이다”며 “모든 것이 무상하며 생과 멸이 사라지면 그것이 곧 적멸이다. 이를 제대로 알아 무상함을 알고 〈열반경〉에 말씀에 따라 제대로 수행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번 참회산림법회 기간 동안에는 도영 스님(前 포교원장), 혜총 스님(前 포교원장), 자광 스님(前 직지사 주지), 해수 스님(前 동국대 정각원장)이 법문을 설했다. 불자들은 매년 스님들의 법문을 듣고 참회하며 발심의 계기를 얻는다고 입을 모았다.

법석에 참석한 장영자 씨는 “참석한지 40년이 넘었는데 매년마다 큰 스님들의 법문을 들으면서 생활을 돌아보게 되고

1947년 화엄산림으로 시작해
법화·열반·참회산림법회 이어가
열반절 의미 되새기고 정진 당부

계를 어겼던 것을 반성하게 됐다”며 “법석을 통해 얻는 가르침으로 가족과 제 주변에 모든 사람에게 회향하는 삶을 살 수 있어서 기쁘다”고 말했다.

심채란 씨는 “매년 스님들을 모시고 법석에 참여 할 수 있어 행복하다”며 “특히 부처님의 열반에 맞춰 정진에 대해 설해주시니 더욱 신심이 생긴다. 앞으로도 빠짐 없이 참석하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소림사는 열반재일을 맞아 3월 23~27일 참회산림법회를 개최했다. 법회에서 前 포교원장 도영 스님은 〈열반경〉과 바른 정진에 대해 설했다.

소림사 참회산림법회는 우리나라 최초의 화엄법사인 소림사 금광 스님이 화엄산림법회를 시작한 것이 시초가 됐다. 1947년 문을 연 화엄산림법회는 이 후 10년간 봉행되다 광우 스님의 법화산림, 철우 스님의 열반산림으로 각각 10년씩 진행됐다. 이후 1978년부터 참회산림으로 변경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산림법회가 흔치 않았던 당시, 하루 1천명이 넘는 인원이 참석하는 대규모 법회였을 정도로 위상이 컸다. 특히 도심포교를 담당한 사찰로 청소년, 거사림, 대학생들의 보금자리였으며 매일 법석이 열려 전법 포교도량의 역할을 담당했다.

주지 종인 스님은 “오랜 시간 동안 이어 온 산림법석을 계속 이어 갈 수 있도록 마음을 다할 것이며 수행 전통을 계승 할 것이다”고 말했다. 하성미 기자

정토마을, 적멸보궁 되다

3월 21일 부처님 진신사리 이운 법회

(재)정토사관자재회 정토마을 자재요양병원(이사장 능행 · 이하 정토마을)이 부처님 진신 사리를 봉안했다.

3월 21일 정토마을은 부처님 진신사리 이운 법회를 대법당에서 개최했다. 부처님 진신사리는 스리랑카 정부가 정토마을에서 진행 중인 ‘호스피스 전문 완화의료병동’ 원만 건립불사를 발원하며 희사한 것이다. 정토마을은 부처님 진신사리가 있는 보궁으로 정토마을을 인식해 줄 것과 불교호스피스 활동에 많은 관심을 독려하고자 행사를 개최했다고 취지를 밝혔다.

이운 법회는 먼저 거리 퍼레이드로 시작됐다. 언양 파출소에서 언양성당까지 총 40분 동안 언양읍 번화가를 걸으며 부처님의 진신사리 이운을 축하하며 그 기쁨을 시민들과 나눴다. 이어 법회는 △삼신이운 및 천수바라 △공양작법 △육법공양 △음성공양 △경과보고 △법문 순으로 진행됐다. 이어 정토마을은 3월 23일부터 부처님 진신사리 봉안백일기도에 입재해 정진하고 있다.

(재)정토사관자재회 정토마을 자재요양병원은 3월 21일 스리랑카 정부로부터 희사받은 부처님 진신사리 봉안을 축하하며 거리 행진을 벌였다.

정토마을은 “현재 저희 정토마을관자재요양병원은 호스피스병동의 모자란 병상을 마련하기 위해 ‘호스피스 전문 완화의료병동 건립불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건립불사를 지지하는 스리랑카 정부에 감사하며 상구보리 하화중생이라는 부처님 가르침을 바탕으로 ‘고통 앞에 차별 없는 돌봄’을 실천 할 것이다”고 전했다.

한편, 이 자리에는 능행 스님을 비롯해 정토마을 후원자 및 자원봉사자, 스리랑카 관계자 200여명이 참석했다.

하성미 기자

지수 대종사 원적 12주기 다례재

17일 직지사 중암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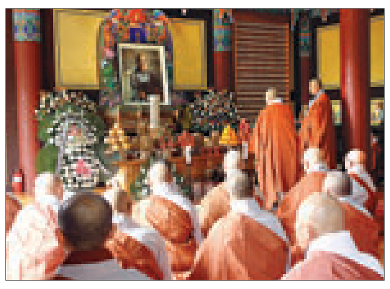
김천 직지사 중암(주지 도진)은 3월 17일 ‘관응당 지수 대종사 원적 12주기’를 맞아 경내 영산대보전에서 다례재를 봉행했다.

이날 직지사 부주지 정신 스님, 통도사 前 주지 원산 스님, 운문사 승가대학장 일진 스님, 운문사 주지 진광 스님, 관응 문도 등 사부대중 200여명이 동참했다.

분향 삼배가 있은 후 “눈에 보이는 모두가 도다”라는 지수 대종사 스님의 육성법문이 있었다.

관응문도 상좌 덕해스님은 “12주기 이날까지 잊지 않고 참석해준 사부대중에게 감사하다”고 인사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직지사 중암은 3월 17일 ‘관응당 지수 대종사 원적 12주기’ 다례재를 봉행했다.

佛都 부산, 나눔으로 더불어 행복

조계종 부산연합회 등
자비의 쌀 및 후원금 잇달아

부산 불교계가 자비 나눔 실천으로 ‘함께 행복한 세상’을 발원했다.

조계종부산연합회(회장 수진)는 3월 22일 안국선원교육관에서 부산불교복지협의회 자비의 쌀 나눔 전달식을 개최했다.

백미 20kg 290포 총 5천8백kg는 부산불교복지협의회 산하 무료급식소 및 노인요양원 등 28개 복지 기관에 전달됐다. 이날 자비의 쌀 전달식에는 회장 수진 스님을 비롯해 회원 스님 20여명이 참석했다.

회장 수진 스님은 “부처님의 여러 법 가운데 중요한 것은 나눔 일 것이다”며 “자비의 쌀이 어렵고 힘든 사람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화엄승가회(회장 자인)는 3월 20일 라메르 뷔페에서 대학교 불교동아리 지원금을 희사했다. 지원금은 부산대, 동아대, 해양대 불교 동아리에 전달됐다. 제1차 정기 총회를 맞아 진행한 이번 지원금 전달식을 통해 화엄승가회는 인재불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앞으로도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임을 약속했다.

부산에서 불교 단체 및 사찰들이 나눔을 실천했다. 마이산 부산분원 구평사 주지 진성 스님이 지역의 노동자를 격려하며 쌀을 전달하고 있다.

회장 자인 스님은 “화엄승가회의 창립 목적은 근본적으로 자리이타이다”며 “특히 육바라밀을 실천하며 인재불사에 매진해 나아갈 것이다”고 말했다.

마이산탑사 부산사하분원 구평사(주지 진성)는 ㈜복성산업개발과 함께 3월 23일 부산 구평동 이편한세상 2차 공사현장에서 사하구 건설 노동자 1천2백 가구에게 백미 10kg 1포대씩 총 백미 1만2천kg을 전달했다.

이번 자비의 쌀 전달식은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는 노동자 6백명과 지역의 노동자 6백명을 함께 격려하기 위해 개최됐다. 전달식에 이어 아파트 공사 안전기원으로 봉화산 산신제, 감천만 용신수륙대재 및 유주무주 고혼 천도재를 함께 봉행했다.

진성 스님은 “건설하고 있는 아파트가 행복한 삶의 도량이 되고 노동자분들의 안전을 기원하기 위해 이런 자리를 마련했다”며 “또한 많은 사람들이 시주해주는 쌀을 헛되이 쓰지 않고 베품으로 나누게 되어 기쁘다”며 뜻을 전했다.

부산개인택시법륜회(회장 이상조)는 쌀 10kg 200포를 부산불교복지협의회에 전달했다. 3월 17일 부산 홍법사 대적광전에서 창립 17주년 기념법회를 맞아 진행한 전달식에는 홍법사 주지 심산 스님, 이상조 법륜회 회장 및 사부대중 300여명이 참석했다. 하성미 기자

진각종 부산교구 진각누리단 첫 공연

진각누리단의 첫 공연이 개최됐다.

진각누리단은 진각종 부산교구(교구청장 효원정사)가 청소년 포교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9월 창단한 단체다.

3월 19일 해운대 복합문화센터 대강당에서 개최된 이번 공연은 ‘흥부네 대박났다 전해라’는 제목의 퓨전 난타 창작극이며 희망과 해학을 담아 인과응보 및 교훈을 전달해 큰 호응을 얻었다.

공연에는 진각종 부산교구 어린이회 자성동이팀, 청소년 및 청년회 30명 참여했으며 행사에는 통리원 문화사회부 부장 호당정사, 부산교구 청장 효원정사 및 사부대중 300여명이 참여해 응원했다.

진각종 부산교구 진각누리단이 창단 이후 첫 공연을 3월 19일 개최했다.

진각종 부산교구는 “청소년에게 또 다른 놀이 문화를 선사하고 타악 공연 속에서 다양한 상상력과 감수성을 개발하도록 도움을 주고자 했다”며 “앞으로 문화를 통해 청소년을 포교 할 수 있도록 노력 할 것이며 지속적으로 지원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성미 기자

동명불원 · 용호복지관 18일 MOU 체결

동명불원(주지 화랑)이 용호종합사회복지관과 사회공헌 협약식을 체결하고 매월 저소득 결식 어르신을 위한 생일 잔치연 봉사 및 후원을 약속했다.

3월 18일 용호종합사회복지관 내 회의실에서 개최된 협약식에서 주지 화랑 스님은 “협약식을 통해 나눔의 발판을 든든히 둬 기쁘다”며 “솔선수범해 더 많고 다양한 활동으로 자비 나눔을 실천할 것이다”고 밝혔다. 하성미 기자

동명불원과 용호종합사회복지관은 3월 18일 협약식을 통해 지역 나눔에 더욱 앞장 설 것을 다짐했다.

LEADER

社團法人 世界佛敎 法王廳

수 많은 불교국가 중에 승려 수 60 ~ 65만 명의 불교나라 미얀마 연방 승가회 (미얀마 종정스님)회장을 2015년 6월 2일 세계불교도들의 법왕으로 추대하는 의식을 성대하게 봉행하였고 11월 1일에는 모든 각료들의 임명을 법왕님께서 직접 수여하시는 영광스런 행사를 봉행하였습니다.

각 나라 승가 최고스님들께서 법왕을 보필하는 상임 최고 장로로서의 취임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며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Dr 우 꾸마라 (세계불교도의 법왕)

세계불교 위상과 단합된 불교의 모습을 보이는데 일조하겠다는 생각없이 불제자로서의 인품, 인성도 인격도 내던져버리고 자신의 명예나 이익에 부합하면 동참하다가 임명장만 받고는 참여도 아니하고 자신의 사찰에 임명장 걸어놓고 신도들에게 자랑하면서도 동참은 커녕 소리없이 사라지는 자칭 큰스님들을 수 없이 겪어 보았습니다. 이제는 참신한 인재를 모시고 싶습니다.

부처님을 감동시키는 부처님 세상, 참다운 불교, 부처님께 부끄럽지 않는 부처님 세상을 이루는데 뜻을 같이 할 종단, 출가자, 재가자 모두 포함한 사부대중에서 인재를 찾고자 합니다.

사단법인 세계불교 법왕청 대표 전화번호 : 011-229-6061. 기획실 : 010-4467-9600